

# 광주시 상업지역 초고층 아파트 높이 낮춘다

### 시 뒤늦게 대책 나서...내일 토론회 개선안 제시 계층·세대·소득 감안 임대주택 공급방안 마련도

광주시가 상업지역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게 하는 현재 용도지역제의 부작용(광주일보 2017년 12월 6~8일 보도)과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상업지역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주거시설 비중을 줄이고, 주거시설을 짓더라도 그 높이를 낮추게 할 방침이다. 대부분의 상업지역에 이미 초고층 아파트·오피스텔 등이 들어섰거나 인허가 과정에 있어 뒤늦은 감이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광주의 정체성과 어울리도록 아파트 디자인을 개선하고, 계층·세대·소득 등을 감안한 임대주

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9일 "오는 11일 시청사에서 열리는 '광주광역시 도시 회복을 위한 상업지역 초고층아파트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음식점, 점포 등 상가가 들어서야 할 상업지역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과도한 높이의 주거복합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기반시설 부족과 일조권, 교통난, 교육시설 부족 등 도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0~2015년까지 상

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은 평균 13.6층으로 대부분 15층 규모였으나 2016년 이후 평균 33층, 최대 48층으로 큰 폭으로 높아졌다. 2000~2015년까지 300세대 미만 20층 이하가 대부분이었으나 2016년 이후에는 도심 외곽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1000세대 이상 30~40층 이상의 초고층 대규모 주상복합 건축물이 신축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비주거 용도 의무비율에서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제의 ▲주거용도 준주거 용적률 적용, 비주거용도에만 상업지역 용적률 차등 적용 ▲비주거시설의 의무 확보 면적 10%에서 최소 30%로 상향 등을 개선 방안으로 내놓았다.

이와 함께 전국 대도시 가운데 아파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광주에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는 고층·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건축,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건축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주택 디자인-안전 향상 모델'을 개발,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향후 대규모 주택단지 등에 적용하기 위한 조례, 공동주택 심의규칙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광주다운 아파트 공급 방안" 시행과 함께 내년부터는 '2030 주거종합계획'을 동시에 추진해 수요자 맞춤형 주거정책을 실현하고 주거문화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 10일 구성

### 광주시·시민모임 등 합의 중립인사 7명 등 11명 구성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10일 구성될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시민권익위원회, 광주시 교통건설국,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이하 시민모임) 등은 최근까지 6차례 모여 의견을 조율한 바 있다. 광주시는 10일 시청에서 7차 모임을 갖고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공식 논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의견을 상당부분 조율한 상태에서 이날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공론화위원회는 각 대학과 전문가에 추천을 의뢰해 받은 후보를 중심으로 중립적인 인사 7명에 광주시 교통건설국과 시민모임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해 모두 11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애초 시의회 2명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의결기관이면서 민선 6기에 지하철 건설방식을 승인한 의회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배제했다. 또 중립적인 인사로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면 굳이 이해 당사자

인 광주시와 시민모임이 추천하는 후보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어 7명으로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양측은 그동안의 만남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지는 데에는 큰 이견 없었다.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은 그동안 5개 대학과 변호사협회, 서울의 갈등관리 전문기관 등에 공론화위원회 후보 추천을 의뢰해 모두 18명을 통보받았다. 이들 후보 가운데 광주시와 시민모임이 제척해야 할 대상을 배제하고 나머지 후보 가운데 중립적 인사 7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양측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으며,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공론 방식에 승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민모임 측은 여전히 '시민참여형 속의조사'가 아니면 공론화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공론 방식이 어떤 내용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찬반이 첨예한 이해당사자 간 충돌 가능성이 농후하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6차례의 만남에서 서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하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10일 회의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상수도 확충사업 국비 1517억 확보

전남도는 내년 상수도 확충사업에 올해 (843억원)보다 674억원 늘어난 151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예산은 식수원 개발과 노후상수도 정비 위한 상수도 확충사업에 투입돼 도내 지역 식수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 사업별로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 예산이 607억원에서 663억원, 도내 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이 97억원에서 502억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이 139억원에서 352억원으로 늘었다.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과 정수장 고도처리 등이 추진된다. 특히 내년에는 생활형 SOC사업에 포함된 노후상수도 시설 정비와 도내 지역식수원개발에 집중 투자해 지역의 먹는 물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국내 최대 규모 자동차 문화축제인 '2018 전남GT'가 9일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렸다. 전남GT는 자동차 레이싱, 모터사이클, 드리프트, 오프로드 등 다양한 모터스포츠 6개 대회가 한 자리에서 열리는 대회다.

# 이용섭 시장, 삼성전자 대표 만나 전장사업 투자 등 논의

이용섭 광주시장이 삼성전자 최고위층과 만난다. 삼성의 자동차 전장(전자장비)사업 관련 광주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 시장은 오는 11일 삼성전자가 광주사업장에서 삼성전자 김현석 대표이사 사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2016년 일부 생산라인 베트남 이전과 관련해 생산량이 줄어든 프리미엄 가전 라인의 확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삼성의 미래성장사업 분야인 전장사업 투자와 관련해 광주투자자를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3년간 180조원(국내 투자 130조원)을 투자해 AI·5G·바

이오·반도체 중심 자동차 전장부품 등 4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직접 채용 4만명을 포함, 70만명의 직·간접 고용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자동차 전장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 공약사업인 데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어 광주시가 주요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며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도 2016년 4월 총선 공약으로 '전장산업 광주 유치'를 발표했고, 이듬해 4월에는 대선 공약에 반영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에도 채택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국내 최대 자동차문화축제 '전남GT' 이창우 우승

국내 최대 복합 자동차문화축제인 '2018 전남GT(Grand Touring)' 메인 클래스 '전남내구 300'에서 하만모터스포츠의 이창우 씨가 우승했다. 또 국내 최고 모터스포츠 대회인 '캐딜락 6000'에서는 일본의 야나기다 씨가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 대회에 출전한 탤런트 류시원 씨는 12위에 랭크됐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8 전남GT'가 8~9일 영암 국제자동차(F1)경주장에서 열렸다. 전남GT는 자동차, 모터사이클, 드리프트, 오프로드 등 6개 모터스포츠 대회를 한 자리에서 여는 전남도가 개발한 세계 유일의 자동차대회다. 대한자동차경주협회 공인 경기로 메인

클래스인 '전남 내구' 31대를 비롯해 슈퍼바이크 20대, 오프로드 60대, 전기차 대회인 '에코 EV챌린지' 10대, 드리프트 35대 등 모두 310대가 경주를 펼쳤다. 정해진 시간에 가장 먼 거리를 달리는 차량이 우승을 차지하는 내구 레이스(전남내구 300)에서는 이창우 씨가 1위를, 권재인(원레이싱)·도영주(2NDMOTORS) 씨가 2·3위를 차지했다. 전남내구 200은 김양호 씨가, 전남내구 100은 김요겸 씨가 우승했다. '캐딜락 6000'은 일본 야나기다 씨가 우승을 차지했고, 조항우(아르나스BX), 김준중(서한피플) 씨가 뒤를 이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남개발공사 사장에 김철신 전 도의회 의장

전남개발공사 사장에 김철신(60·사진) 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임명됐다. 김 사장은 10일 오전 김영록 전남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에 들어갔다. 앞서 전남도의회는 김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에서 '적격' 판정했다. 보고서는 "후보자의 개발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성 결여와 경영 부재 등은 탁월한 진화력과 소통능력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고 개발공사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한 걸음 앞서는 비전을 제시해 나간다



면사장으로서 업무 수행 능력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순천 출신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조 합위원회 의장, 전남도의회 의장(4선), 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호남스틸 대표이사를 지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에 최형식 담양군수

최형식(사진) 담양군수가 민선 7기 전반기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담양 죽녹원에서 첫 회의를 열어 최 군수를 전반기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전남지역 시·군간 소통과 교류협력 증진 및 공동 현안에 대한 대응을 통해 상생과 자치발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22개 시·군 단체장



협의체다. 최 신임 회장은 "민선 7기 가장 큰 과제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상생 발전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지방분권, 지방재정분권,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두 쏟아부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시행하다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 2018년 마음챙김 시민대학 교육생 모집

광주광역시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인상의 행복과 삶의 가치 재발견을 위한 마음챙김 시민대학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마음챙김이란?**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수용적인 태도로 지각하는 것. 대상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하여 주관을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일상 속 일에서

지역구	교육내용	교육시간	모집인원
광주광역시 거주 하는 시민 누구나	마음과 명상 이야기, 감정함께, 마음 들여다보기, 그 외 이해하는 깊은 명상, 페르소나, 마음도형 함께 그리기, 숲 테라피, 바디스캔, 하트요가 등	45시간	20명

※ 강사: 광주여자대학교 전임교원

**모집기간** 2018. 09. 03(월) ~ 2018. 09. 28(목)  
**교육기간** 2018. 10. 02(월) ~ 2018. 11. 22(금)  
**교육시간** 매주 화, 목 18:00 ~ 21:00  
**교육장소** 광주여자대학교 강의실 및 실습실(후후 안내)  
**교육특징** 교육비 지원(재료비 포함), 교재 제공, 수료증 발급 등  
**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 접수  
**문의**: 광주시 평생교육팀 201 광주여자대학교 여대관 1층 3115호 평생교육팀  
**전화**: (062)950-3583~5

"마음을 관찰하다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미묘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때 직관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더 명료하게 사물을 보게 되어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스티브잡스(1995-2011)

주최 | 광주광역시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 주관 | 광주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 펜션·가든 부지 매매

-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